

제8회 나라사랑 평화나눔 DMZ 국토대장정

DMZ 250km, 통일 향한 열정으로 횡단하다



청년 대학생들이 8월 9~15일 강원도 고성에서 경기도 임진각까지 국토의 허리를 가른 DMZ를 횡단하며 나라사랑과 통일을 향한 염원을 불태웠다. 국토대장정 단원들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뜨거운 열정으로 무더위를 이겨내고 대장정을 완주해 냈다.

완주식 임진각에서 열린 완주식에서 완주의 기쁨을 외치는 참가자들.



출정식 대장정에 오르는 대학생들을 격려하는 김경재 총재.



백골병단전적비 강원 인제군에 위치한 백골병단전적비를 찾아 헌화·참배하고 있다.



철원 노동당사 강원 철원의 노동당사를 둘러본 후 기념촬영.



월정리역

'철마는 달리고 싶다' 월정리역을 방문한 대학생들.



백마고지 '피의 능선' 백마고지를 향해 걸어가는 대학생들.



쇠골마을 경기 파주시 쇠골마을에서 캠프파이어를 마치고 교육을 받는 학생들.